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나권수** · 윤재근***

대진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종교교육 과제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을 지녀왔던 한국사회도 이제 전형적인 다문화·다종교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와 이들을 통합시키는 데 종교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오해와 경시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세계화와 한국화를 조화할 수 있는 대화와 공존의 지혜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인으로 갖추어야 할 폭넓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어 합의된 의미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지향점이 상이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양교육에 있어 종교교육을 어떤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시대상황과 시행목적에 따라 교양교육이 함의하는 바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이성의 계발과 전인적 인간개발이라는 의미로 집약될 수 있다. 요컨대 대학 교양교육의 지향점은 전문적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격적 성장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인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871).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주저자, luozi@daejin.ac.kr

***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교신저자, jkyoung@daejin.ac.kr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전통만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사회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 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종교교육의 개념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범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유의미한 교양 교과목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교양교육,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문맹률, 다문화, 종교다원주의

I. 서론

본 연구는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과제의 발전적 모색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교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의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명제는 문화의 근저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문화의 근원에 접근할 수 없으며,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한다. 이러한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 현상은 편견과 오해를 불러 평화로운 공존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종교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같은 언어와 문화, 혈연을 근간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의 자긍심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확산은 예전에 없던 문화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지구촌의 개념에서 볼 때, 대다수 국가도 이미 다종교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전통적인 특정 종교가 그 사회를 주도하거나 또는 특정 종교의 과점적인 양태로 여러 종교가 공존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병존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문화의 병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종교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은 다양성의 존중과 화합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종교자유’의 경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거나, 일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이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이른바 ‘땅뽕기’와 같은 타종교에 대한 직간접적 침해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¹⁾ 종교적 갈등은 자기 신념체계의 절대화에서 비롯된다. 종교의 배타적 성격을 앞세워 자기 종교의 교세만을 확장하려 한다면 종교 간 상호마찰은 불가피하다. 종교적 문제는 계층, 젠더, 이념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종교교육이 유효하다는 것은 종교계나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²⁾ 물론 일각에서는 종교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므로 공교육 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하지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무지와 오해, 혹은 곡해에서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종교교육은 다른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 1927~2001)가 종교교육의 관건이 ‘지식을 갖춘 공감’에 있다고 한 것은 다종교 상황에서 여러 종교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 종교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공감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³⁾

이미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그러한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⁴⁾ 특

1) 일례로 김천 개운사 훼손사건이 있다. 2016년 개신교인이 법당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며 불상과 불구를 훼손하였다. 당시 서울기독교대학교 손원영 교수는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였고, 그 이유로 파면을 당하였다. “손원영 교수의 행동은 개신교인 스스로의 내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종교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손 교수의 행위는 오히려 타종교를 존중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향하는 기독교인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면서 파면결정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교와 그리스도의 교회 정체성을 파괴하는 언행”이라며 파면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손원영 교수, 상 받을 자인가? 별 받을 자인가?>, 《뉴스엔넷》, 2017년 2월 27일자,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3> (검색일 2019.6.20.)

2) 류성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종교문화연구』 제20호 (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3), 24쪽.

3) Ninian Smart, *The World's Religions*, 윤원철 옮김, 『세계의 종교: 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2004), 804쪽 참조.

4) 김재영,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제46집 (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119-123 참조.

히, 국제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의 이면에 종교가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의 필요성 및 그 방법론의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교육이 단순히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현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전반에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학계의 연구는 특정교단의 입장이 반영된 중등학교 종교과 교과의 타당성 연구 또는 그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⁵⁾ 또한,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도 중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교육의 사례 보고 및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시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⁶⁾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정 종교의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문맹률의 증가와 종교 갈등의 양상을 진단한 후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교교육의 개념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한다.⁷⁾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범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교양교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돈구,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2005);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고병철, 『종교교과교육과 종교교과교과론』 (서울: 박문사, 2014); 김귀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2010); 박범석, 「교과관에 따른 중립학교 종교 교과의 구성과 활용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4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박선영,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윤재근,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제34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6) 박선영,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이하 동일 권호임); 손원영,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 김귀성,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세현,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박일영,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가톨릭 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성주현,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7) 정진홍,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체문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제41집 (서울: 대한민국 학술원, 2002), 270쪽.

II. 종교문맹률의 증가와 종교갈등

종교는 적어도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삶 자체였고, 인간은 종교적 인간(Home Religiosus)이었다. 하지만 근대 과학의 발달은 인간 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종교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며, 종교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호와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⁸⁾

급격한 탈종교 현상과 무종교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종교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했다.⁹⁾ 무엇보다 종교인의 비율이 2005년 52.9%(24,526천 명)에서 2015년 43.9%(21,554천 명)로 감소했고, 무종교인은 같은 기간 47.1%에서 56.1%로 증가했다. 2005년에 비해 10년 만에 무려 9%p, 약 3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인구비율이 종교가 있는 인구비율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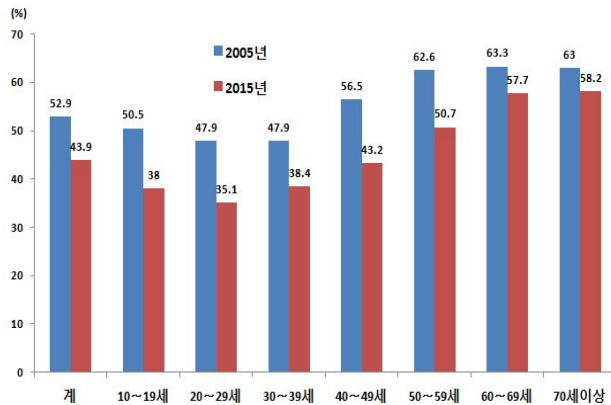
또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낮았다. 종교인 비율은 20대가 35.1%로 가장 낮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70대에는 58.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2005년과 비교하여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은 40대로 13.3%p 감소했고, 다음이 20대(12.8%p), 10대(12.5%p) 순이다. 이는 젊은 층의 탈종교현상과 종교인의 고령화로 향후 장기적인 종교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함을 예시하고 있다.

8)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보고서 〈엑소더스(Exodus): 미국인들은 왜 종교를 떠나는가, 그리고 왜 돌아올 것 같지 않은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종교가 없다’ 혹은 ‘무신론자다’라는 응답률이 2016년 8월 25%로 집계되었다. 1986년 7%, 1996년 12%, 2006년 16%였던 미국 비종교 인구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Exodus: Why Americans are Leaving Religion—and Why They’re Unlikely to Come Back”, 2016.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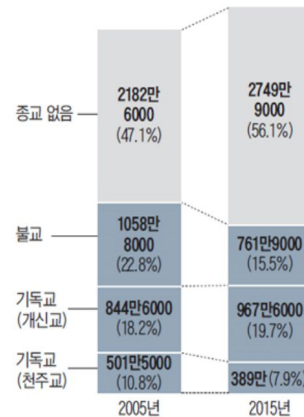
<https://www.prri.org/research/prri-rns-poll-nones-atheist-leaving-religion/> (검색일 2019.6.20.)

9)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8170 (검색일 2019.6.20.)

〈표 1〉 연령별 종교인구



〈표 2〉 종교유형별 인구



종교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첫째, 합리적 사고의 유행과 종교 권위의 상실, 둘째, 배금주의로 인한 종교의 세속화, 셋째, 집단에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 넷째, 종교인의 부도덕한 행태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이것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탈종교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역으로 종교가 위로와 치유, 회복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인의 종교인구 비율 감소와는 달리 이주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통념과 자긍심을 지녀왔던 한국사회도 2019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39만 명에 이르렀다.¹⁰⁾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의 약 4.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증가하여 결혼 이민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¹¹⁾ 더욱이 2009년 UN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인구가 본격 감소하는 2050년에는 이주외국인의 비율이 대략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일부 구성원이 편입되는 수준을 넘어 우리사회가 이미 완전한 다문화사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사회란 언어, 인종, 민족, 국적, 종교, 관습, 가치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다양한 문화를

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5월호, 13쪽, <http://www.moj.go.kr/bbs/immigration/227/502500/artclView.do> (검색일 2019.6.20.)

11) 결혼이민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검색일 2019.6.20.)

국제결혼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검색일 2019.6.20.)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종교적 신념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 유혈 사태와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수 종교를 향한 경시와 오해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심화될 경우 우리사회의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한국갤럽의 조사보고에 의하면,¹²⁾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절대적 진리로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즉, 특정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웃종교를 향한 배타적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¹³⁾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종교에 대해 모르면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라고 한다.¹⁴⁾ 종교적 문맹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함께 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종교학회(AAR)가 2010년에 발간한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육을 위한 지침서’¹⁵⁾에서는 종교적 문맹을 아래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세계 종교 전통들의 기본 교리
- 세계 종교 전통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교적 표현과 신념의 다양성
- 역사적으로나 오늘날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증대한 역할¹⁶⁾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종교적 문맹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전통 종교를 비롯하여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의 한국자생신종교, 유교계, 불교계, 기독교계의 파생 신종교, 국제도덕협회, 천리교, 한국SGI(창가학회)와 같은 유입 신종교 등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존하고 있다.¹⁷⁾ 더욱이 제도종교에서 탈피한 이른

1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72-73쪽.

13) 윤승용, 「한국종교, 30년간의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27집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207쪽 참조.

14) 류성민, 〈종교적 문맹과 종교교육〉,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288호, 2013년 11월 12일자, <https://crrc.tistory.com/1777> (검색일 2019.6.20.)

15)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Internet], 2010); <https://rlp.hds.harvard.edu/publications/guidelines-teaching-about-religion-k-12-public-schools-united-states> (검색일 2019.6.20.)

16) *ibid.*, p.4.

17)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별 교단 현황은 불교 482개, 개신교 374개, 천주교 1개, 유교 1개, 천도교 1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0개, 기타 57개로 총 927개로 추산하고 있다. 고병철·강돈구·조현범,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¹⁸⁾가 등장해 종교 영역에 대한 새로운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국가 구성원 전반이 종교 일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종교학회는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맹으로 연유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학문적(academic)이고 비신앙적(non-devotional) 관점의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프로테오(Stephen R. Protheo)는 『종교적 교양』¹⁹⁾에서 종교적 문맹은 일반적인 ‘문화적 문맹’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를 ‘더 종교적’(more religious)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립적 입장에서 종교교양 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이안 무어(Diane L. Moore)는 『종교적 문맹 극복하기』²⁰⁾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종교적 문맹’과 그로 인한 갈등의 증폭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의 비교과적인 ‘종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²¹⁾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²⁾

현재 우리사회는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각종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곡해와 왜곡은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양산된 자극적인 정보들은 이러한 실례라고 하겠다. 종교는 궁극적 가치체계이며 절대 신념체계이다. 이러한 절대 신념체계 간의 조우는 평화가 아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종교는 자기 신념체계의 외적 요인과 대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의 가치관과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²³⁾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및 종교분쟁들은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사회도 자기 종교의 신념체계만을 고수한 채 무절제한 자기 확장에 주력한다면 종교 간 마찰은 불가피하게 된다.

2018), 98쪽 참조.

18) 성혜영,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한국신종교, 치유를 말하다』(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104쪽 참조.

19) Stephen R. Prothero, *Religious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and Doesn't* (New York: HarperOne, 2008), pp.178-179.

20) Diane L.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54-57.

21) 안신 외, 『공직자 종교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연구』(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3), 3-4쪽 참조.

22) 류성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6-18쪽 참조.

23) 윤이흠,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적 다종교 상황」,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91), 210쪽.

종교가 갈등의 원천이 아닌 평화를 주도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너선 섉스(Jonathan Sacks)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를 위해 공간을 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²⁴⁾고 말한 바 있다.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종교를 모르면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편견은 다시 종교적 편향과 차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교적 문맹은 주변 문화에 대한 개인의 몰이해를 넘어 사회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적 문맹을 탈피하는 것이 종교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II.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과 종교교육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학의 기능과 목표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교양교육을 강화하거나 재편해야 한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²⁵⁾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2010~2014), 대학구조개혁평가(2015~2017), 대학기본역량진단(2018~2020)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학 교양교육이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직업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²⁶⁾ 또 한편에서는 교양교육이 사회 변화에 뒤처져 시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²⁷⁾ 이를 살펴보면, 보편적 진리탐구와 실용적 가치 추구 사이의 갈등, 교양인 양성과 전문 직업인 육성 간의 격차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자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기존의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

24) Jonathan Sacks, *Dignity of Difference: How to Avoid the Clash of Civilizations*, 임재서 옮김,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서울: 말글빛냄, 2007), 6쪽.

25)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연구』 제6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3-15쪽.

26) 장미옥,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대한사교개발학회, 2004), 283쪽.

27) 송경오·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제34권 제4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07), 165-167쪽 참조.

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을 추구하는 교양교육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일각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해결책으로 독서를 통한 인문교양교육을 제시하고 있다.²⁹⁾ 또한, 동서양의 오랜 문화전통에 의하면 교양교육은 인문학 그 자체였으며,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문학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⁰⁾ 이와 같은 제안은 모두 지금까지 경시되어왔던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시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개념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한 분야의 혁명적 기술 변화가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적 융복합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촉발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 삶의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융복합적 사고와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교양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나 동시에 무거운 과제 또한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전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용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기술 진보에 의한 직종의 이원화는 소득 격차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실현될 삶의 편의가 모두에게 주어질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계층 간 소외 현상을 초래해 더 심각한 사회·문화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교육학적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또는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

28)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16쪽.

29)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234-249쪽 참조.

30) 차하순, 「전환기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152-154쪽 참조.

정 및 정책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¹⁾ 지금의 교육방식과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것이 자명하다.³²⁾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 되는 시대에 인간들은 AI는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인간이 해왔던 노동의 대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꽤 오랫동안 유용했다면, 이제 4년 간 배운 지식은 사회에 나갔을 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이른바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Facts)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겠다. 새로운 지식이 배움과 동시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시대에 이제 개별적 지식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융합하는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주목받을 것이다. 지식의 형태가 융합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공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않게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이다.

교양교육은 고대 그리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에서 연원하여 독일의 도야교육(Bildung)에서 숙성되었으며 미국의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통해 현대화되었다.³³⁾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교육은 자유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율적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본질이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육이 교양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³⁴⁾ 인문학적 교양교육이 전인교육으로서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간학적 측면의 교육인 만큼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상은 이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다. 이미 인성교육을 종교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다.³⁵⁾ 이들 연구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31)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서울: 한국정책학회, 2017), 6쪽.

32) 나권수·김영주,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41-43쪽 참조.

33)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25쪽.

34)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교양기초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참조, https://konige.kr/sub02_08.php (검색일 2019.6.20.)

35) 성해영·박범석,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이하 동일 권호임); 구분만, 「인격주의 인성교

제기한다. 이를테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양시키고 인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³⁶⁾ 즉, 인성교육을 위한 모델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 영역에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³⁷⁾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비록 그 교리적 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한다.³⁸⁾ 종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treng, 1933~1993)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를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³⁹⁾

IV.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방향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로는 ① 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⑥기술대학 ⑦각종학교 등이 있다. 또한, 제30조(대학원대학)에 의거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이 있다.⁴⁰⁾ 이를 기준으로 종립대학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¹⁾

육의 실천 방향」; 문선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나권수·윤재근,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박미옥·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등.

36) 성혜영·박범석, 위의 글, 1쪽.

37)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서울: 박문사, 2014), 331-332쪽.

38) 나권수·윤재근, 앞의 글, 78쪽.

39)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46쪽.

40) 〈고등교육법〉(법률 제16330호, 일부개정 2019.04.23.) 제2조(대학원대학) 및 제30조(대학원대학) 참조,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99> (검색일 2019.6.20.)

41) 고병철·강돈구·조현범, 앞의 책, 194-197쪽 참조. 기타교단은 중원대학교(대진성주회)와 성덕대학교(성덕도)가 해당한다.

〈표 3〉 종립대학 현황

구분 \ 교단	전체 대학수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통일교	기타	계
일반대학	191	2	5	61	14	2	1	1	1	87
교육대학	10									-
대학원대학	45		3	23		1		1		28
전문대학	137			23	1	1			1	26
원격대학	22		2			1				3
산업대학	2									-
기술대학	1									-
각종학교	22			2						2
계	430	2	10	109	15	5	1	2	2	146

우리나라 대학은 2018년 현재 총 430교이다.⁴²⁾ 이 중 종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달한다. 이는 종립재단이 고등교육에 상당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중등학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학까지 포함하면 국민교육에 대한 전담률은 이보다 상회할 것이다. 우선 종립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교교육 관련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³⁾

〈표 4〉 종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

대학명	설립교단	이수 구분	이수 영역	과목명
성균관대	유교	교양	인성	▪ 성균논어
			인간/문화	▪ 비교종교학의 이해 ▪ 종교와 유럽문화
동국대	불교	공통교양	자아성찰	▪ 자아와 명상 1/2 ▪ 불교와 인간 ▪ 만해와 불교

42) 〈KESS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대학통계-연도별추이-연도별 학교수 참조,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9.6.20.)

43) 일반대학 중 설립교단과 관련한 전문·특수 교육기관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를 선별하여 각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강의시간표를 참고하였다.

		일반교양	인문	-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 만해와 근대지성 - 근현대고승열전 - 불교와 인지과학 - 만해의 생애와 사상 - 인도불교이야기 - 현대요가와 자기이해
			사회	종교와 법
			자연	- 붓다와 인공지능 - 종교와 과학
			문화	일본, 문학, 그리고 불교
위덕대	불교	교양필수		- 마음공부 - 불교와 사회
가톨릭대	가톨릭	기초교양필수		- 인간학 1/2 - 영성 I (삶·영혼 그리고 예수) - 영성 II (생명윤리학)
		중핵교양필수	인문핵심교양	- 문학과 종교 - 종교와 평화이해
서강대	가톨릭	공통선택		- 종교와 세계문화 - 신학적 인간학 - 그리스도교 윤리 -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성 - 진·선·미·성
		자유선택		- 한국문화와 종교 - 종교, 폭력, 평화 - 영성수련 - 이성과 신앙 - 성서와 생활 - 영성과 문화예술 - 과학과 종교
강남대	개신교	기초교양		- 채플(인성교육) I - 채플(이웃사랑) II - 채플(공동체리더십) III - 채플(행복나눔) IV - 기독교와 현대사회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 인간과 종교 ▪ 기독교 명저 읽기
계명대	개신교	공동교양		▪ 채플 1/2 ▪ 기독교의 이해
		일반교양		▪ 법과 종교
연세대	개신교	공동기초		▪ 채플
		교양기초		▪ 기독교와 현대사회 ▪ 기독교와 세계문화 ▪ 성서와 기독교 ▪ 기독교 역사와 문화 ▪ 기독교와 과학
이화여대	개신교	이화진선미	인성	▪ 기독교와 세계
		융복합교양	역사와철학	▪ 인간과 종교
원광대	원불교	교양필수		▪ 종교와 원불교
		교양선택	수련과 봉사	▪ 선과 인격수련
대진대	대순진리회	교양필수		▪ 대순사상의 이해
		교양선택	핵심교양	▪ 인간과 종교 ▪ 종교와 예술
			자율선택교양	▪ 종교행복론
선문대	통일교	공동체인성		▪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I / II ▪ 채플
		균형교양	인문학	▪ 철학과 종교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교 관련 교양교과목을 살펴보면,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을 비롯해 종교와 문학, 종교와 평화, 종교와 예술과 같은 융복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 과목의 종류와 분반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 설립 주체와 관계된 ‘종교적 교육’⁴⁴⁾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

44) 박선영은 종교교육을 그 내용과 기능에 따라 종파교육으로서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종교성의 형성과 고양을 위한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in narrow meaning), 종교의 문화 현상에 관한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구분하였다. 박선영, 「초·중등학교와 종교 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4-15쪽 참조.

로 ‘2018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과목개요’⁴⁵⁾의 종교 관련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서울대학교 종교 관련 교양과목

이수구분	이수영역	과목명	
교양과목	문화와 예술	▪ 현대종교와 문화 ▪ 종교와 영화	▪ 종교와 예술 ▪ 현대문화와 기독교
	역사와 철학	▪ 한국사 속의 유학 ▪ 한국문화와 불교 ▪ 불교철학의 이해 ▪ 이슬람 문명의 역사 ▪ 기독교와 서양문명 ▪ 성서와 기독교 사상의 이해	▪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 ▪ 종교 상징의 세계 ▪ 종교학의 이해 ▪ 인간과 종교 ▪ 세계종교입문 ▪ 명상과 수행

위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 중 ‘종교학의 이해’의 교과목 개요를 보면, “비전공학생들에게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도 심오한 사상과 행위를 수반하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종교에 접근하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종교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종교학의 설명 방식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 간 갈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결에 종교학적 시각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한다. ‘종교에 관한 교육’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목적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심화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신앙 일변도의 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한 폭넓고도 균형 있는 교양을 추구해야 한다.⁴⁶⁾

하지만 대다수의 종교적 배경을 지닌 대학에서는 종교 교양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양교육으

45) 서울대학교, 『2018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과목개요(학사과정)』 참조, <http://www.snu.ac.kr/curriculum> (검색일: 2019.6.20.)

46) 윤재근,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신종교연구』 제2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9), 132쪽.

로서의 종교교육을 여전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리주입식 교육은 합리적 비판능력과 개방적 사고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개별 종교전통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타고난 개인의 능력과 인간성을 완전하게 발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주입식 교화는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유도하기보다는 독선적 편견을 심어주어 인간 사이의 장벽을 쌓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⁴⁷⁾ 그러므로 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계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제는 종교교육을 종교의 세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 시각에서 벗어나 종교에 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이제까지의 팽창주의적 선교교육을 넘어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다종교 상황이라는 현대사회 실정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다원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종교 간 상생이 아닌 상극을 조장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설립교단의 외적 팽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 안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해의 교육, 즉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종교교육이 전인적 인격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를 한 차원 높게 이해할 수 있는 인격도야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종교교육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회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고, 종교의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종교적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종교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47) 김용표,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0쪽 참조.

V. 결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종교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종교적 문맹’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문맹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도 종교적 문맹의 확산이 심각하다. 그런데 종교에 대한 무지는 개인의 지적 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몰이해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이 편견은 다시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다종교 사회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종교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세계화에 따른 종교 간의 공존과 그 결과 발생한 내재적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상이한 종교 간의 문화를 융합하고 조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성을 계발한다면, 인류 문화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 바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에 있다. 따라서 교육학적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지식정보사회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에 대한 관점과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무한히 양산되는 지식과 점점 짧아지는 지식의 주기는 지식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제 전문 기술이나 단편적 정보가 아닌 무한히 양산되고 있는 지식을 융합하는 역량과 이에 맞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사전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 통념처럼 꼭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는 “Connect the Dots”라는 명제로 창의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창의성의 핵심을 ‘연결하는 것(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으로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네 영역을 포함한 확산적 사고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확산적 사고와 함께 수렴적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대학 교육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산업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나 네오희머니즘(Neo-humanism)과 같은 인류의 새로운 인간관이 등장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첨단 기술을 통해 완전히 개조된 새로운 인간존재를 추구한다면, 네오희머니즘은 인공지능(AI)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트랜스휴머니즘이 세계와 인간을 디지털화하여 균일한 법칙들의 총체로 규명하려 한다면, 이와 달리 네오희머니즘은 세계를 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창조적 공간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본질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네오희머니즘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의 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양교육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다. 종교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하고,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바람직한 관점을 제공하여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교양교육의 전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은 특정의 종교적 배경 아래 실행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은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목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편 정도로 이해되었다. 오히려 종교적 문맹을 양산하는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특정의 종교전통을 주입·전파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계와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자기 종교가 종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종교들 사이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교적 중립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우리사회의 소통을 주도하고, 다가올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돈구,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2005.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4.
- 고병철·강돈구·조현범,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8.
- 김귀성,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김용표,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재영,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제46집(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서울: 한국정책학회, 2017)
-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 나권수·김영주,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나권수·윤재근,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류성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종교문화연구』 제20호(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박선영,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박선영,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박일영,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가톨릭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 성주현,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성해영,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한

- 국신종교, *치유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 성해영·박범석,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 손원영,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송경오·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한국교육』 제34권 제4호(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안신 외, 「공직자 종교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윤승용, 「한국종교, 30년간이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종교문화비평』 제27집(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 윤이흠,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적 다종교 상황」『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91.
-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종교교육학연구』 제34집(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윤재근,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신종교연구』 제27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9)
- 이세현,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2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장미옥,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서울: 대한사고개발학회, 2004)
- 정진홍,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제문제」『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1집(서울: 대한민국학술원, 2002)
- 차하순, 「전환기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 Diane L.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Jonathan Sacks, *Dignity of Difference: How to Avoid the Clash of Civilizations*, 임재서 옮김,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서울: 말글빛냄, 2007.

Ninian Smart, *The World's Religions*, 윤원철 옮김, 『세계의 종교: 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2004.

Stephen R. Prothero, *Religious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and Doesn't*, New York: HarperOne, 2008.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Internet], 2010.

원고접수일: 2019년 6월 22일 심사일: 2019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20일

연구자소개: 나권수

- ① 전공: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 소속과 직위: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 ③ 주요논저: 「뇌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이해」,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에 관한 고찰」, 「대순진리회의 정신개혁론 연구」,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 ④ E-mail: luozi@daejin.ac.kr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과 직위: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갈등치유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역할과 전망」,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한국 신종교 경전의 문학적 요소」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Abstract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Na, Kwonsoo ·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based on the awareness of reality due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and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search and future prospects of religious education tasks.

As you can see, Korea is a typical multi-religious society. Religion has become an important point of contention in integrating variou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 of migrant foreigners increases. Moreover, the disrespect and misunderstanding of minority religions is becoming a deterrent to social integration, and if this is deepened, it could serve as a factor in social conflict. Thus, we must learn the wisdom of dialogue and coexisten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where globalization and Koreanization should be balanced.

Consequently, religious education is requested as a wide range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achieve a smooth life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The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ies takes various types according to their purpose, making it difficult to find the agreed meaning. Also, the purpose of providing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varies from university to university according to its establishment ideology.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clear policy on how to approach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what purpose and content as a liberal education.

However, even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lications of liberal arts education depending on the times and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what is clear can be summed up as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and well-rounded human development that can promote human freedom. In short, the goal of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ies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personal growth wit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kills.

In this context, religious education is not a one-sided way of explaining one's own world view, but provides an insight that all of those who are aiming for a community together are the main players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see and understand each othe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sought to provide desirable religious education as the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ies. The concept of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settled not as teaching religion, but as teaching "about" religion, and it is expected that religious education will function as a meaningful subject that can be taught at all levels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s part of pan-civil education.

Key words : Libe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Rates of Religious Illiteracy, Multi-cultural Society, Religious Pluralism